

MOON **법[문법]**

수능 평가원 고육청 선별

150제

해설편

그믐달(이용우) 편저

기출로 개념 다지기

1.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걷-	+ -고	→ 걷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어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원형은 '파랄다'이다. '파랄-' + -아'에서 '파래'가 되었다. 어간인 '파랄-'에서 'ㅎ'이 탈락하였고 어미인 '-아'가 '이'로 바뀌었다.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는 불규칙에 해당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원형은 '오다'이다. '오-' + -어라'에서 '오너라'가 되었다. 어간인 '오-'는 변하지 않고 어미만 변하는 '-너라' 불규칙에 해당한다.
- ③번 원형은 '짓다'이다. '짓-' + -어'에서 '지어'가 되었다. 어간인 '짓-'에서 'ㅅ'이 탈락하였으므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중 'ㅅ 불규칙'에 해당한다. 어미는 변하지 않았다.
- ④번 원형은 '묻다'이다. '묻-' + -어'에서 '물어'가 되었다. 어간인 '묻-'에서 'ㄷ'이 'ㄹ'로 변하였고 어미는 변하지 않았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중 'ㄷ'이 'ㄹ'로 바뀌는 'ㄷ 불규칙'에 해당한다.
- ⑤번 원형은 '얻다'이다. '얻-' + -자'에서 '얻자'가 되었다.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지 않았다. 이는 규칙 활용에 속한다.

2.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6B)

< 보 기 >

학생 : '되어요, 돼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 "어간 모음 'ㅁ'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지는 것은 '내'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돼요'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돼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람을) 쐬다, (턱을) 괴다, (나사를) 죄다, (어른을) 뵈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

학생 : 아, 그러면 ㉠

- ① '쐬어라'는 '쐬-'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쐬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② '괴-'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괘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 ③ '쐬도'는 '쐬-'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들어 있을 것네요.
- ④ '뵈-'가 '-어서'와 결합되면 '뵈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쇄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쐬- + -어라'는 '쐬라'로 줄어들어야 한다. '쐬라'의 경우 '-어'가 아예 탈락하였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괴- + -느냐'는 '괘느냐'로 줄어든다. '어'가 없으므로 '괘느냐'는 틀린 말이다.
- ③번 '쐬- + -어도'가 줄어들어 '쐬도'가 된다.
- ④번 '뵈- + -어서'가 줄어들어 '뵈서'가 된다.
- ⑤번 '쇠- + -더라도'가 줄어들어 '쇄더라도'가 된다. '어'가 없으므로 '쇄더라도'는 틀린 말이다.

그믐달, MOON법

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료

- 차에 실은(○) 것이 뭐니?
- 시들은(×)/시든(○) 꽃 한 송이가 있다.
- * ○: 어문 규정에 맞음, ×: 어문 규정에 어긋남.

의문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실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

- 실은 → 실-(어간) + -은(어미)
- 시든 → 시들-(어간) + -ㄷ(어미)

㉡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u>들은</u> (○) 소리다.	듣다	들은	듣-+-은
경성을 <u>쏟은</u> (○)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u>내밀은</u> (×)/ <u>내민</u> (○)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ㄷ
<u>부꼴은</u> (×)/ <u>부푼</u> (○) 꿈을 안고 왔다.	부꼴다	부푼	부꼴-+-ㄷ

결과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ㄷ'이 결합하면 ㉡ .

- | | |
|-----------------|------------|
| ㉠ | ㉡ |
| ① 'ㄷ'이 'ㄹ'로 교체됨 | '-으-'가 삽입됨 |
| ② 'ㄷ'이 'ㄹ'로 교체됨 | 'ㄹ'이 탈락함 |
| ③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해설 : '듣- + -은'이 '들은'이 되었고, '쏟- + -은'이 '쏟은'이 되었다. '쏟은'은 어간 'ㄷ'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라 할 수 있고 '들은'은 어간 'ㄷ'이 'ㄹ'로 교체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해설 : '내밀- + -ㄷ'이 '내민'이 되었고, '부꼴- + -은'이 '부푼'이 되었다. 두 경우 모두 어간의 'ㄹ'이 탈락한 경우라 할 수 있다.

4. '유리판이 만들어 내는 뛰어난 영상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과 쓰임이 다른 것은? [1점] (07수능 변형)

- 이순신은 적의 침공을 막아 내었다.
- 김 선생은 시험 문제를 이틀에 걸쳐 내었다.
- 오빠는 유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 내려고 애썼다.
- 어떻게 해서든 손해 배상금을 받아 내고야 말겠다.
-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만들어 내다'에서 '만들어'는 본용언, '내다'는 보조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유리판이 만드는 뛰어난 영상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라고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시험 문제를 이틀에 걸쳐 내었다'의 경우 '걸쳐'와 '내었다' 모두 본용언에 속한다. 따라서 '김 선생은 시험 문제를 이틀에 걸쳤다'라고 쓸 수도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막아 내었다'에서 본용언은 '막아'이고 보조용언은 '내었다'이다. 보조 용언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순신은 적의 침공을 막았다'가 가능하다.

③번 '닦아 내려고'에서 본용언은 '닦아'이고 보조용언은 '내려고'이다. 보조 용언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오빠는 유리에 묻은 페인트를 닦으려고 애썼다'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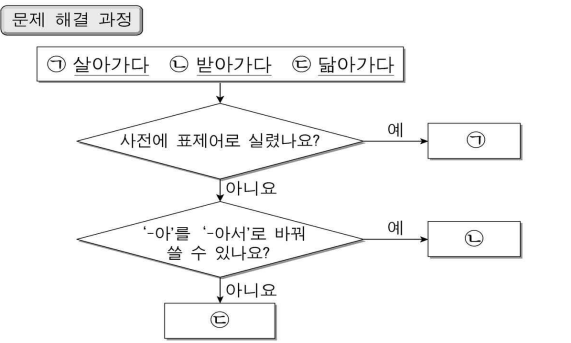
④번 '받아 내고야'에서 본용언은 '받아'이고 보조용언은 '내고야'이다. 보조 용언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손해 배상금을 받고야 말겠다'가 가능하다.

⑤번 '도출해 내야'에서 본용언은 '도출해'이고 보조용언은 '내야'이다. 보조 용언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가 가능하다.

5.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를 연결시킨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6AB)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뺏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지 않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뺏아 가다 또는 뺏아가다
②	살아가다	또는 받아 가다	뺏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뺏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또는 받아 가다	뺏아 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뺏아 가다 또는 뺏아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해설 : '살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두 번째 확인 사항에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나와 있다. 표제어는 한 단어이고 한 단어는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살아가다'라고 써야 한다.
㉡해설 : '받아서 가다'가 가능하다. 네 번째 확인 사항에 따라 '본용언 + 본용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본용언은 서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받아 가다'라고 써야 한다.
㉢해설 : '뺏아서 가다'가 가능하지 않다. 네 번째 확인 사항에 따라 '본용언 + 보조용언' 구성임을 알 수 있다.(한 단어였으면 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확인 사항에서 '뺏아 가다'와 '뺏아가다' 모두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 <보기>의 설명에 따라 학습지를 풀 결과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6.10)

< 보기 >
선생님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도와 드리다'의 경우 '드리다'가 보조 용언이니까 '도와 드리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와드리다'도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럼 선생님 설명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학습지
* 다음은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이다. 띄어쓰기에 맞는 표현을 모두 찾아 ○표 하시오.

○ 활활 타던 불이 <u>꺼져 갔다</u> / <u>꺼져갔다</u> ①
○ 의자를 뒤로 <u>밀어내 버렸다</u> / <u>밀어내버렸다</u> ②
○ 내가 그 일에 <u>덤벼들어 보아라</u> / <u>덤벼들어보아라</u> ③
○ 책을 여러 번 <u>읽어도 보았다</u> / <u>읽어도보았다</u> ④
○ 공책에 <u>기록해 두었다</u> / <u>기록해두었다</u> 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읽어도 보았다'에서 본용언은 '읽어도'이고 보조용언은 '보았다'이다. '읽어도'는 '읽어'와 보조사 '도'가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보조용언을 붙여서 '읽어도보았다'라고 쓸 수 없고 '밀어내 버렸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꺼져 갔다'에서 본용언은 '꺼져'이고 보조용언은 '갔다'이다. 따라서 '꺼져갔다'와 '꺼져 갔다' 모두 맞는 표현이다.
②번 '밀어내 버렸다'에서 본용언은 '밀어내'이고 보조용언은 '버렸다'이다. '밀어내'는 '밀다'와 '내다'가 합쳐진 합성동사이다. 따라서 보조용언을 붙여서 '밀어내버렸다'라고 쓸 수 없고 '밀어내 버렸다'라고 띄어 써야 한다.
③번 '덤벼들어 보아라'에서 본용언은 '덤벼들어'이고 보조용언은 '보아라'이다. '덤벼들어'는 '덤비다'와 '들다'가 합쳐진 합성동사이다. 따라서 보조용언을 붙여서 '덤벼들어보아라'라고 쓸 수 없고 '덤벼들어 보아라'라고 띄어 써야 한다.
⑤번 '기록해 두었다'에서 본용언은 '기록해'이고 보조용언은 '두었다'이다. 따라서 '기록해두었다'와 '기록해 두었다' 모두 맞는 표현이다.

그믐달, MOON법

7.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폼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온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둘 다 동사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위의 ‘아니’는 부사이고 아래의 ‘아니’는 감탄사이다.
②번 위의 ‘대로’는 명사(의존 명사)이고 아래의 ‘대로’는 보조사이다.
④번 위의 ‘만큼’은 명사(의존 명사)이고 아래의 ‘만큼’은 보조사이다.
⑤번 위의 ‘다섯’은 수사이고 아래의 ‘다섯’은 (수)관형사이다.

8.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수능)

— < 보 기 > —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너 안경 잃어버렸다며? 괜찮아?
B: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저기에 있잖아. 빅타이를 매고 있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고 있-’을 ‘-는 중이-’라고 교체해 보자. ‘안경 벗는 중이어서도’라 바꾸면 어색하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속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양치질을 하는 중’이라 써도 괜찮다. 양치질은 동작이지 상태라고 볼 수 없다.
②번 ‘오해하는 중’이라 쓰면 어색하다.
③번 ‘알고있는 중’이라 쓰면 어색하다.
⑤번 ‘매는 중’이라 써도 괜찮다.

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9A)

<보 기>

동사의 어간에 연결 어미 ‘-(으)며’가 결합할 때,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연결 어미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 철수가 커피를 마신다.
→ 철수가 음악을 들으며(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 ①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 ②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며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 ③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 ④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 ⑤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며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 앞뒤 주어가 같지 않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주어가 ‘우리’로 같다. 걸으면서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번 주어가 ‘모두들’로 같다. 음정에 주의하며 동시에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 ③번 주어가 ‘아는 사람 하나’로 같다. 미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내’게 다가오는 것도 가능하다.
- ④번 주어가 ‘마라톤 선수’로 같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에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6.9B)

<자 료>

-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
- ㉡ 영화 구경 [가지요].
- ㉢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야.

<보 기>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오. (×)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
읽어 읽어오 먹을까 먹을까요

- ① ㉠-a ② ㉠-b ③ ㉡-b ④ ㉡-a ⑤ ㉢-c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해설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요’에서 ‘-요’는 종결형 어미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의해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오’라고 적어야 한다.

㉡해설 : ‘영화 구경 가지요’에서 ‘-요’는 ㉢에서처럼, 생략해도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높임을 표현하는) 보조사이다. 따라서 ㉢에 의해 ‘영화 구경 가지오’라고 적어야 한다.

㉢해설 : ‘이것은 설탕이오, 저것은 소금이야’에서 ‘-요’는 연결형에 사용된다. 따라서 ㉢에 의해 ‘이것은 설탕이오, 저것은 소금이야’라고 적어야 한다.

그믐달, MOON법

11. <보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시제와 높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 /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
 ㄷ.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 소설을 읽겠다.
 ㄹ. 어제 보니, 철수는 소설을 읽더라.
 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읽으셨다.

- ① ㄱ의 '-는-'은 현재임을, '-었-'은 과거임을 나타내는군.
- ② ㄴ과 ㄷ의 '-겠-'은 미래임을 나타내는데, ㄴ에서는 추측, ㄷ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지니는군.
- ③ ㄹ의 '-더-'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함을 나타내는군.
- ④ ㅁ을 보니,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군.
- ⑤ ㅁ을 보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오는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읽으셨다'를 분석해보면 '읽- + -으시- + -었- + -다'이다.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었-'이고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는 '-(으)시-'이다.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왔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④번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12.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 <보기 2> —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 들: ㉠ 누가 왔는지 ㉡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택배 왔습니다.

아 들: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꽃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네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① ㉠: 부정칭 대명사 ② ㉡: 일인칭 대명사
- ③ ㉢: 미지칭 대명사 ④ ㉣: 재귀대명사
- ⑤ ㉤: 이인칭 대명사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누가 왔는지'에서 '누가'는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여기서 '누가'는 온 사람이 정해지지 않아서가 온 사람은 정해져 있으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쓰였다고 할 수 있다.

1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07.6)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였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지?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위의 ‘저희’는 1인칭, 아래의 ‘저희’는 3인칭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둘다 3인칭이다. 가. 미지칭(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나. 부정칭(아무도 지칭하지 않음)

③번 둘다 3인칭이다.
 ④번 둘다 2인칭이다.
 ⑤번 둘다 1인칭이다.

14.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9수능)

—<보 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 나는 ㉢ 그쪽에서 ㉣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문맥에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내’가 만약 ‘나의’의 줄임말이라면 ‘나의가 부탁 하나 할게요’가 말이 되어야 하는데 어색하다.
 ③번 문맥에서 ‘나’의 아버지지 그쪽의 아버지라는 것은 알 수 없다.
 ④번 적절하지 않다.
 ⑤번 높임법에 맞는다.

그믐달, MOON법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수능)

—<보 기>—

선생님: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선행 3인칭을 지칭하니, 재귀대명사다.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6. <보기>의 담화 상황으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3)

—< 보 기 >—

A: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야?

B: 아니, 내가 영희에게 민수 말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분명히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

A: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나 보다. ㉢아무나 좋으니 일단 나서서 민수와 영희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교실에 있었던 애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B: 나도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 ① ㉠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② ㉡은 B가 앞서 언급한 '영희'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③ ㉢은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④ ㉣은 화자가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⑤ ㉣은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B의 대답에서 영희가 민수에게 분명히 말하고 책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했다기 보다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가서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17.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따라서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써야한다.

18.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수능A)

예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예'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예'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③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예' ①의 용례에 쓰인 '예'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예' ②의 용례에 쓰인 '예'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의 '에서'는 '에서 ①'의 경우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⑤번 원래 용례의 경우 형의 도착지가 집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예'를 '에서'로 바꿀 경우 형의 출발지가 집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믐달, MOON법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6.9A)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 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순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①번 '군데'는 관형어 없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ex) 것, 수, 바, 데 와 같은 의존 명사

<오답 선택지 해설>

그릇, 덩어리, 순가락, 발자국 전부 자립 명사다.

20.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6A)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정답 선택지 해설>

- ③번 '친구한테'의 '한테'는 부사격조사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오직'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이다.
- ③번 평소에는 안 먹다가 '오늘'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보조사이다.
- ④번 다른 것도 하는 데 '악기 연주'도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보조사이다.
- ⑤번 더함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사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9A)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찍 가는'은 '이유'를 수식하는 관형사 역할을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⑤번 '운동하기'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9)

<보 기>

-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 ① ㄱ의 '께서, 에'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꾸어도 '동생과 형이'로 쓰인다.

그믐달, MOON법

23.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6.6A)

<보 기>

과 「조사」 (반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①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방에서 동생과 조용히 공부했다. / ㉡』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닭과 오리는 동물이다. / 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유의어 하고, ㉣

형태 정보 반침 없는 체언 뒤에는 ‘ ㉤ ’가 붙는다.

- ① ㉠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를 넣을 수 있다.
- ② ㉡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 들어갈 말은 ‘격 조사’이다.
- ④ ㉣에 ‘이랑’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와’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낯선 사람’은 비교, 기준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③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③번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08.6)

<보 기>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익+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익(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티고기(돌+익+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 ⑤ ‘닭고기’의 옛말은 ‘들기고기(들+익+고기)’라고 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쇼+익+고기’와 ‘돌+익+고기’는 ‘동물 이름 + 관형격 조사 + 고기’로 그 구조가 같다.

25.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07수능)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들’,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미연’은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다른 예시로 ‘돈이면 다 해결되는 판국이다’가 가능하다. ‘-이다’ 서술격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다.
- ③번 다른 예시로 ‘너 덕분에이다’가 가능하다. ‘-이다’ 서술격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다.
- ④번 다른 예시로 ‘그가 없어진 것은 순식간이었다’가 가능하다. ‘-이다’ 서술격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다.
- ⑤번 다른 예시로 ‘제멋대로’가 가능하다. ‘대로’ 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다.

26.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6)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재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정답 선택지 해설>

- ④번 ‘선생님, 빨리요’에서 ‘빨리’ 뒤에 ‘-요’가 붙어서 듣는 사람을 존대하고 있다. 이 경우 종결 어미 뒤에 쓰인 것이 아니라 부사 뒤에 쓰여 듣는 사람을 존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08.6)

—<보기 1>—

- '-마는':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러무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 ㉣

- ㉠해설 : '여행을 가서만'으로 줄이면 어색하다.
- ㉡해설 : '오늘은 그냥 간다만'이라 줄여도 괜찮다.
- ㉢해설 : '가지'는 종결어미가 아니다.
- ㉣해설 : '얼마나 되겠느냐만'이라 줄여도 괜찮다.

28.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08.9)

—<보 기>—

- 얘기를 듣습니까? / 얘기를 듣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시제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철수가 똑똑하다고'와 '누가 가느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번 '비가 그치겠다'는 진술, '비가 그치겠니?'는 의문, '비가 그치겠구나!'는 감탄에 해당한다.
- ④번 '이야기를 듣습니까?'와 '이야기를 듣소?'에서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⑤번 '먹어라'와 '앉아라'에서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29.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6B)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아니,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아니오."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출처] 옷사슴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출처] 보어축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출처] 당어, 어깁어, 어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출처]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평서문에도 쓰일 수 있다. [자료]에 보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오.' 라는 평서문이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기쁘-'라는 어간 뒤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번 '멈추시오'에서 '-시오'는 높임을 뜻하는 선어말 어미이다. '-시오'라는 선어말 어미 뒤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번 '-오'는 종결 어미이다. 어미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
 ⑤번 하오체 높임어미이다.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어미이다.

30.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중 유형이 동일한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기 1 >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형사: 첫 서리가 내렸다.
2. 체언 단독: 고향 소식을 들었다.
3. 체언+조사: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다.
4.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 보기 2 >

아침에 등교하다가 ㉠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 만난 친구와 길을 걸으며 ㉢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지내던 ㉣ 때의 ㉤ 온갖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야기하다 보니 등굣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해설: 2. 체언 단독
 ㉢해설: 4. 용언의 어간(만나-) + 관형사형 어미(-L)
 ㉣해설: 1. 관형사
 ㉤해설: 3. 체언(때) + 조사(-의)
 ㉠해설: 1. 관형사

31.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09.9)

<보 기>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화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는 상관 없다. 'ㄷ'의 경우 동수로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고, 'ㄹ'의 경우 명사로 앞뒤 절의 주어가 같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각각 평서문, 청유문이다.
 ②번 ㄱ은 도서관에 가는 이동의 의미가 있다.
 ③번 부정의 의미인 '안'이 있고 없고가 다르다.
 ④번 종결어미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수능)

<보기>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있다. '동수야, 빵 먹으면서 공부해라.'는 명령문, '동수야, 빵 먹으면서 공부하자.'는 청유문, '동수야, 빵 먹으면서 공부할래?'는 의문문에 해당한다.

33.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5수능)

<보 기>

ㄱ. 담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생략된 주어는 '담'이다. '땀이 이마에 흐르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지 '담정이 이마에 흐르다'가 안겨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ㄱ'의 경우 '땀이 이마에 흐르다'가 안겨 있다. 'ㄴ'의 경우 '그가 착한 사람이다'가 안겨 있다. 'ㄷ'의 경우 '그는 아는 것도 없다'가 안겨 있다.
 ②번 'ㄱ'의 '이마에 흐르는'은 '땀'을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ㄴ'의 '그가 착한 사람임을'은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을 받는 목적어 구실을, 'ㄷ'의 '아는 것도 없이'는 '잘난 척을 해'를 수식하는 부사어 구실을 하고 있다.
 ④번 안긴 문장은 서술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ㄴ'에서 서술어는 '착하다' '사람이다', '모르다', '없다'가 있다. 따라서 '그가 착하다', '그가 착한 사람이다',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른다'가 안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3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수능A)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겨울이 온다'라는 안긴 문장이 '전'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쓰였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색깔이 희다'라는 안긴 문장이 '가'라는 주격 조사를 만나 주어로 쓰였다.
 ②번 '비가 오다'라는 안긴 문장이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만나 목적어로 쓰였다.
 ③번 '자식들이 행복하다'라는 안긴 문장이 조사 없이 목적어로 쓰였다.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⑤번 '우리가 학교에 가다'라는 안긴 문장이 '에'라는 부사격 조사를 만나 부사어로 쓰였다.

3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영수는 ㉠ 집에 가기를 원한다.
- 친구는 ㉡ 밥을 먹기에 바쁘다.
- 영희는 ㉢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
- 그는 ㉣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① ㉠은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은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③ ㉢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④ ㉠과 달리 ㉡의 주어는 안은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과 달리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⑤번
 (가) 우리가 돌아왔다.
 (나) 그는 사실을 모른다.
 (다)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 자체가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번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③번 안은 문장의 목적어인 '빵'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④번 ㉠의 주어는 '친구'로 같다. ㉡의 주어는 '그'이고 안은 문장의 주어는 '우리'로 다르다.

36.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15.9A)

— < 보 기 > —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④번
 (가)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
 (나) 나는 사실을 몰랐다.
 (다)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졌는데 이 문장에서는 생략이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가) 동생이 숙제를 한다.
 (나) 형이 동생을 불렀다.
 (다)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동생'과 (나)의 '동생'이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동생'이 (다)의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번
 (가)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
 (나)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
 (다)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형'과 (나)의 '형'이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형'이 (다)의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③번
 (가) 경희가 버스에 탔다.
 (나)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다)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경희'와 (나)의 '경희'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경희'가 (다)의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번

(가) 화가는 이 그림을 그렸다.
 (나)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화가'와 (나)의 '화가'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화가'가 (다)의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7.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ㄱ. 지훈이가 눈이 크다.
 ㄴ. 그는 지훈이가 성실하고 눈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① ㄱ의 '크다'와 ㄴ의 '알고 있었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 ② ㄱ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 ③ ㄴ의 '성실하고'와 '크다'의 주어는 모두 '지훈이가'로 동일하다.
- ④ ㄴ의 안긴문장에서 앞뒤 절은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 ⑤ ㄴ의 안긴문장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ㄴ의 안긴문장은 '지훈이가 성실하고 눈이 크다'이다. 이 문장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ㄱ에서 서술어 역할은 '눈이 크다'가 하고 있다. (서술절)
 ②번 '눈이 크다'가 서술절로 안겨있는 겹문장이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눈이(주어) + 크다(서술어)'와 '지훈이가(주어) + 서술절' 두 번이다.
 ③번 '성실하고'의 주어는 '지훈이'고 '크다'의 주어는 '눈'이다.
 ④번 안긴문장은 '지훈이는 성실하고 눈이 크다'이다. 앞절은 '지훈이는 성실하고'이고 뒷절은 '눈이 크다'인데 이 두 절은 병렬적으로 이어져 있다.

38.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14.9A)

—<보기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2>—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선생님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학생 :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어머니 :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아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학생 A :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학생 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언니 : ㉣어쩔 이럴 수 있니?
 동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① ㄱ 나
- ② ㄱ ㉡
- ③ 나 ㉡
- ④ ㉡ 나
- ⑤ ㉡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의 경우 시간(언제), 장소(어디서)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경우 빨리 일어나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의 경우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 할 수 있다. ㉡의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라 할 수 있다.

그믐달, MOON법

39.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15수능A)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의 안긴 문장은 '내가 노래(를) 부르다'이다. 따라서 '노래'라는 목적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안긴 문장은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하다'이다.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은 부사어가 없고 ㉡은 '벼농사에'라는 부사어가 있다.
 ②번 둘다 명사절이 안겨 있다.
 ③번 둘다 명사절이 안겨 있다.
 ④번 둘다 안긴 문장 속에 관형어가 없다.

40.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09.6)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니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 때문에 '는'이 사용된 것이 아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말썽꾸러기' 돼지가 할아버지에게는 있기 때문에 '는'을 사용한 것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③번 앞에 나온 개와 고양이와 돼지를 대조하고 있다.(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⑤번 말을 잘 듣는 개와 귀여운 고양이와 차이가 있다.

41.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6A)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자료
[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
할머니 : 어서 와라. ㉠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 네, 엄마. ㉡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 네, ㉢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 아니에요, ㉣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 응, ㉤ 고모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탐구 결과
_____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은미의 입장에서 서술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다르고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의 청자는 고모이고 화자는 할머니이다. ㉢의 청자는 고모이고 화자는 엄마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의 화자는 할머니, 청자는 고모이다. ㉡의 화자는 고모, 청자는 할머니이다.
③번 ㉠의 화자는 할머니, 청자는 고모이다. ㉣의 화자는 고모, 청자는 은미이다. 동일한 인물은 고모부라고 할 수 있다.
④번 ㉡의 화자는 고모이고 청자는 할머니이다. ㉤의 화자는 고모, 청자는 은미이다. 동일한 인물은 고모부라고 할 수 있다.
⑤번 ㉢의 화자는 엄마이고 청자는 고모이다. ㉤의 화자는 은미이고 청자는 고모이다.

42.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06.9)

<보 기>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놓다’는 ‘...에 ...을 놓다’ 구조로 쓰이느냐, ‘...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置]”의 뜻에 가까우나,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풀다[放]”에 가깝다.

- ① ㄱ 우리 형은 세상 물정에 밝다.
ㄴ 오늘밤은 유난히 달이 밝다.
- ② ㄱ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ㄴ 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
- ③ ㄱ 우리 팀은 상대 팀에 깨지고 말았다.
ㄴ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진 원인은 무엇일까?
- ④ ㄱ 철수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ㄴ 이 집안에는 딸의 행동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ㄱ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⑤ ㄴ 커피 잔을 기울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에 간섭하다’, ‘-을 간섭하다’ 모두 ‘직접 관계가 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다’ 의미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에 밝다’는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이고 ‘-이 밝다’는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의 의미이다.
②번 ‘-에 가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이고 ‘-이 가다’는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의 의미이다.
③번 ‘-에/에게 깨(어)지다’는 ‘(속되게) 경기 따위에서 지다’이고 ‘깨(어)지다’는 ‘일 따위가 틀어져 성사가 안 되다’의 의미이다.
⑤번 ‘-에/에게 기울이다’는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곳으로 모으다’의 의미이고 ‘-을 기울이다’는 ‘기울다’의 사동사로 ‘비스듬하게 한쪽이 낮아지거나 비틀어지다’의 의미이다.

그믐달, MOON법

4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14.6B)

—<보기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가) (나)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반드시'는 부정어와 호응할 수 없다. '반드시'를 '절대로'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이 와야 한다. (나)에서는 '타인이'라는 문장 필수 성분이 빠졌다. 따라서 (나)에는 ㉠이 와야 한다.

44.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7.9)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학생들이(주어)', '점심을(목적어)', '먹는다(서술어)'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세 개다. '식당에서'는 부사어로 필수 성분이 아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아이가(주어)', '잔다(서술어)'만 필수 성분이다.
③번 '예쁘게'는 필수적 부사어로 필수 성분이다.
④번 '작은'이라는 관형어가 '것'이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 여기서는 필수적인 경우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08.9)

<보 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짓혀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폼다.
→ 폼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깔다 : ‘-이 -을 -에’ ‘바닥에 퍼놓다’(뜻이 잘못되었다)
- ②번 스치다 : -이 -에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뜻이 잘못되었다)
- ③번 맡기다 : ‘-이 -에(게) -을’ ‘맡다(어떤 물건을 받아 보관하다)’의 사동사.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구조가 잘못되었다)
- ④번 폼다 : -이 -에서 -을 ‘속에 들어 있는 액체, 가루, 낱알 따위를 떠내다’(구조가 잘못되었다)

46.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10수능)

<보 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화자 혼자만 밥을 먹겠다는 의미로 쓰였다.(앞에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화자만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화자인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바라는 행동이다.
- ②번 화자인 엄마가 아이에게 바라는 행동이다.
- ③번 화자가 자기 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같이 바라는 행동이다.
- ⑤번 화자가 자기 뿐만 아니라 학급 친구에게 같이 바라는 행동이다.

49.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13.6)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동일한 '체인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생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지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선생상을 누가 받았는지는 필수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필수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삼촌과'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어떤 것과 비슷한지는 필수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②번 '궤도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어디에서 이탈했는지는 필수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원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③번 '몽둥이로'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하지만 '사위로'는 필수적 부사어로 생략될 수 없다. 무엇으로 삼았는지는 필수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④번 '벼농사에'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무엇에 적합한지는 필수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50.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수능)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문장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문이지 필수적 문장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어디에 요청했는지가 빠져있으므로 '정부에'를 넣어주어야 한다.

③번 누구에게 소개했는지가 빠져있으므로 '누나에게'를 넣어주어야 한다.

④번 어떤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았는지가 빠져있으므로 '그 일을'을 넣어주어야 한다.

⑤번 어디에 어두운지가 빠져있으므로 '동네 지리에'를 넣어주어야 한다.

그믐달, MOON법

51. <보기>를 참조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16.9A)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지낸다.
- 할아버지가 노년에 편하게 지내신다.

↓

문장 성분 분석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 주 어: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게]**

예문	문형 정보
①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②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다.	→ 【...으로】
③ 모두 그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④ 제 피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꼴이다.	→ 【-게】
⑤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⑥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다투곤 했다.	→ 【...에】
⑦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딸려 있다. ⑧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딸려 있다.	→ 【...으로】
⑨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⑩ 청바지에서 물이 허영게 빠졌다.	→ 【-게】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부사어 : 산으로, 요즘에, 가족으로
 필수적 부사어 : 산으로, 가족으로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에
 부사어 : 속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피에, 자연스럽게
 필수적 부사어 : 속임수에, 피에
 ③번 -와
 부사어 : 언니와, 때문에 누군가와, 한밤중에
 필수적 부사어 : 언니와, 누군가와
 ④번 -에 -이 -으로
 부사어 : 가방에, 사은품으로, 책에, 부록으로

필수적 부사어 : 가방에, 책에
 ⑤번 -에서 -가
 부사어 : 옷에서, 깨끗하게, 청바지에서, 허영게
 필수적 부사어 : 옷에서, 청바지에서

52.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6A)

<보 기>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 아, 야, 와, 의)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 끼, 노, 며, 소)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 알, 억, 영, 완)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초성에는 최대 한 개의 자음이 온다. 'ㄱ, ㄷ, ㅃ, ㅆ, ㅉ'는 한 개의 자음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④번 '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3. <보기>를 바탕으로 서술어에 나타나는 ‘-었-, -았-, -였-’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어제는 내내 공부를 하였다.
 ㄴ. 나사를 세계 조였다.
 ㄷ.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ㄹ.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고, 철수는 휴게실에서 음악을 들었다.
 ㅁ. 그는 학생이었고, 뒤에 오는 부부는 그의 부모였다.

- ① ㄱ~ㄹ의 서술어에 나타난 ‘-었-, -았-, -였-’ 속에는 모두 과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② ㄴ에서는 서술어의 기본형이 ‘조이다’이고, ㄷ에서는 ‘먹이다’이므로 두 경우 모두 ‘-었-’이 포함되어 있다.
- ③ ㄱ과 ㄷ의 서술어에 나타난 ‘-였-’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소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④ ㄹ로 보아, 어간 뒤에 ‘-았-’이 아니라 ‘-었-’이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이 쓰이지 않았을 때이다.
- ⑤ ㅁ으로 보아 ‘-이었-’의 준말인 ‘-였-’은 ‘-이었-’을 쓸 때와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그냥 준말로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조이었다’와 ‘먹이었다’가 줄어 각각 ‘조였다’, ‘먹였다’가 되었다.
 ③번 ㄱ은 ‘하- + -었- + -다’이고 ㄷ은 ‘먹- + -이- + -었- + -다’이다.

54.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3수능)

< 보 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는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쁘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쁘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채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에서 ‘광주에’는 도착지를 의미한다. 하지만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에서 ‘경주에서’는 출발지를 의미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로’이다.
 ③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이다.
 ④번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면’이다.
 ⑤번 앞말이 양성 모음일 때는 보통 ‘-아라’로, 음성 모음일 때는 보통 ‘-어라’이다.

55.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밑음과 같은 것은? (09.9)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④ 오뎅이 ⑤ 달리기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밑음’은 ‘밑- + -(으)ㅁ’ 구성이다. ‘밑-’은 동사의 어근, ‘-(으)ㅁ’은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것은 ‘달리기’이다. ‘달리- + -기’로 ‘달리-’는 동사의 어근, ‘-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형용사 어근 ‘길-’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었다.
②번 형용사 어근 ‘기쁘-’에 명사 파생 접미사 ‘-(으)ㅁ’이 붙었다. ‘밑음’과 형태가 유사하다고 이를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 어근의 품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③번 명사 어근 ‘털’에 명사 파생 접미사 ‘-보’가 붙은 파생어이다.
④번 형용사/부사 어근 ‘오뎅-’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었다.

56.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수능)

선생님: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는 의존형태소를 의미하며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는 이형태를 의미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단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밑줄친 부분에서는 ‘은’, ‘는’, ‘을’, ‘를’ 조사만 해당한다.
②번 ‘듣’, ‘들’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④번 ‘듣’, ‘들’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⑤번 ‘듣’, ‘들’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57.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수능)

<보 기>

○ 그는 손으로 방문을 세게 밀었다. (⇒ 밀쳤다)
 ○ 어제는 서쪽 하늘이 몹시 붉었다. (⇒ 붉디붉었다)

- ① 그 집은 매우 크다. (⇒ 커다랗다)
- ② 그는 건강을 다시 찾았다. (⇒ 되찾았다)
- ③ 그는 남의 말을 몰래 들었다. (⇒ 엿들었다)
- ④ 그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 (⇒ 헛디뎠다)
- ⑤ 그는 오늘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 싸움질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싸움질했다'는 '심하게' 싸웠다는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그냥 '싸우다'의 의미이다.

58.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8수능) [3점]

<보 기>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먹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먹이’를 ‘머기’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 ② ‘목거리’와 달리 ‘목결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예로군.
- ③ ‘마중’을 ‘맞웅’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웅’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마개’는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의 경우이다.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믐달, MOON법

59.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2.6)

—<보 기>—

- 들5【조사】(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9【접사】(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 줌 전에 ㉡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 그래요. 그런데 ㉢ 아이들은 어디 보냈나요?

어머니 :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화야! 빨리 ㉣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화 :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 많이들 컸구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들9'에 해당한다. 셀 수 있는 명사 뒤에 붙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들5'로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 ②번 '들5'로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 ④번 '들5'로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 ⑤번 '들5'로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60.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13.6)

—<보 기>—

밤중에 밭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 원형으로 젓고)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덧대다'의 뜻은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치뜨다'의 의미는 '눈을 위쪽으로 뜨다'이다.
- ③번 '들끓다'의 의미는 '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이다.
- ④번 '되감다'의 의미는 '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이다.
- ⑤번 '휘젓다'의 의미는 '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이다.

6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9)

<보기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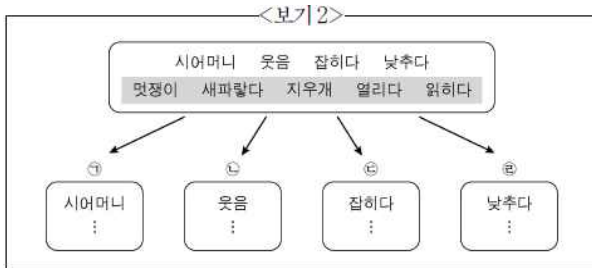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③ '지우개'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읽히다'는 ㉣에 해당한다. 문장 구조에 변화는 있지만 품사는 동사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멋쟁이'는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다. 명사 '멋'에 '-쟁이'가 붙어 명사 '멋쟁이'가 된다.
②번 '새파랗다'는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다. 형용사 '파랗다'에 '새-'가 붙어 형용사 '새파랗다'가 된다.
③번 '지우개'는 동사 '지우-'에 '-개'가 붙어 명사 '지우개'가 된 경우이다.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진 경우이다.
④번 '열리다'는 동사 '열다'에 '-리-'가 붙어 '열리다'가 된 경우이다. '그가 창문을 열다'와 같은 문장이 '창문이 열리다'처럼 바뀐다.

62.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14.6A)

<보기1>

문 장
. 아침에 하는 ㉠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 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2>

. 그는 멋쩍게 ㉢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가수는 현란한 ㉣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④ '추-'에 접미사 '-(으)ㅁ'이 붙은 명사이다.
⑤ '걸-'에 접미사 '-(으)ㅁ'이 붙은 명사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웃-'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은 동사이다.
⑤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ㅁ'이 붙은 동사이다.

그믐달, MOON법

63.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14수능B)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①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1.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길이(길- + -이),
2.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마중(맞- + -웅), 무덤(문- + -엄), 지붕(집- + -웅)
3.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뒤뜰(뒤 + 뜰), 쌀알(쌀 + 알)
4.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해당 사항 없음

64.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15.9A)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돌다’와 ‘서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꿈(을) 꾸다’에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 ③번 ‘뒤- + -섞다’에서 복합어에 해당된다.
- ④번 빛(이) 나다’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형성된 단어이다.
- ⑤번 ‘오르다’와 ‘내리다’의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형성된 단어이다.

65. 다음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수업 중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내용]

발표 1: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무당'은 어근 '무당'에 접두사 '선-'이 결합하여 '서툰'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군말', '군살'도 그 예에 속합니다.

발표 2: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보'는 어근 '피'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발표 3: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하다'가 붙으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 ① '발표 1'의 내용 중 '군말', '군살'의 '군-'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군.
- ② '발표 1'과 '발표 2'를 종합해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군.
- ③ '발표 2'의 단어에 '멋쟁이', '장난꾸러기'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발표 2'와 '발표 3'을 종합해 보면, '피보'는 '-보'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 ⑤ '발표 3'에는 '숙제하다'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명사 '피'에 접미사 '-보'가 붙어 명사 '피보'가 되었다. 품사 변화가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③번 '멋쟁이'는 어근 '멋'에 접미사 '-쟁이'가 붙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의미가 더해졌다.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에 접미사 '-꾸러기'가 붙어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의미가 더해졌다.
- ⑤번 명사 '숙제'에 '-하다'가 붙어 동사로 변화하였다.

66.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보 기>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가지 구성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닫이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어근 '싸우-'에 접미사 '-(으)꾼'이 붙어 먼저 '싸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꾼'이 붙어 '싸움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싸움꾼'은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접두사(군-) + 명사(것)} + 접미사(-질)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③번 {어근(놀-) + 접미사(-이)} + 명사(터)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 ④번 '명사(병) + {어근(막-) + 접미사(-애)}'의 구조로 된 합성어이다.
- ⑤번 '어근(밀-) + 어근(달-) + 접미사(-이)'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그믐달, MOON법

67. <보기>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설명이다. 한글 맞춤법 조항의 내용과 ㉠, ㉡을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추가되었다.

㉠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ㄷ, ㅌ’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음. 예) 만이, 굳이, 묻히다	㉡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음. 예) 희망, 하늬바람	㉢
㉢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음. 예) 떡이, 손이, 팔이	㉣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함. 예) 목거리(목병), 노름(도박)	㉤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음. 예)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	㉥

<정답 선택지 해설>
 ㉡번 어법에 맞추어 적은 경우이므로 ㉡에 해당한다. 소리에 맞추어 적은 경우라면 ‘희망’, ‘하늬바람’이라고 적어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번 소리에 맞추어 적은 경우라면 ‘마지’, ‘구지’, ‘무치다’라고 적어야 한다.
 ㉢번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 경우이므로 어법에 맞추어 적은 것이라고 해야 한다.
 ㉣번 어법에 맞추어 적은 경우라면 ‘목걸이’, ‘놀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번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이므로 어법에 맞추어 적은 것이다.

6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6.3)

< 보 기 >

선생님: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근은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가리킵니다.

용언	어간	어근
춥다 (단일어)	춥-	춥-
치춥다 (파생어)	치춥-	춥-
쌌춥다 (합성어)	쌌춥-	쌌, 춥-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용언이 파생어나 합성어일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세 단어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용언	어간	어근
줄이다	줄이-	㉠
힘들다	힘들-	㉡
오가다	오가-	㉢

- | | | | |
|---|-----|-------|--------|
| | ㉠ | ㉡ | ㉢ |
| ① | 줄이- | 힘들- | 오가- |
| ② | 줄이- | 힘들- | 오-, 가- |
| ③ | 줄- | 힘들- | 오가- |
| ④ | 줄- | 힘, 들- | 오-, 가- |
| ⑤ | 줄- | 힘, 들- | 오가- |

<정답 선택지 해설>
 ㉣번 ㉠은 ‘줄-’이고 ㉡은 ‘힘’, ‘들-’이고 ㉢은 ‘오-’, ‘가-’이다.
 어간은 다양하게 변화할 때 바뀌지 않고 고정된 부분이라 생각하면 쉽고 어근은 단어를 분석하여 일일이 나누었을 때 중심의미를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69.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단어들의 표기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6.10)

< 보 기 >

<한글 맞춤법의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중 일부 >

㉠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중, 어간의 뜻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길이, 믿음

㉡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목거리(병의 일종), 거름(비료)

㉢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예) 나머지, 울가미

- ① '맞다'에서 파생된 '마중'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② '걷다'에서 파생된 '걸음'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③ '막다'에서 파생된 '마개'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④ '넘다'에서 파생된 '너머'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 ⑤ '놀다'에서 파생된 '노름'은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으로, ㉢에 따른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어'는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동사 '맞다'의 어간 '맞-'에 '-움'이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 '마중'이 되었다. ㉢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②번 동사 '걷다'의 어간 '걸-'에 '-음'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 '걸음'이 되었다. 이는 어간의 뜻을 유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 ㉠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③번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애'라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 '마개'가 되었다. ㉢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⑤번 동사 '놀다'의 어간 '놀-'에 '-음'이라는 접미사가 붙었는데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하여 '노름'이 되었다. ㉢의 경우이다.

70.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07수능)

< 보 기 >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못 + -되다 ² → 못되다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참 + -되다 ² → 참되다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막 + -되다 ² → 막되다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용례)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용례) · <u>못</u> 된 장난을 치다니.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u>영광</u> 된 자리에 서다.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¹'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꼭 그렇지만은 않다. '-되다¹'의 '평가되다'와 '-되다²'의 '참되다' 등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건설되다', '평가되다'에서 알 수 있다.
②번 명사 '영광'과 부사 '참'에서 알 수 있다.

71.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07.6)

<보 기>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¹-’, ‘-답²-’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¹-’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²-’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¹-’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²-’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¹-’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²-’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답 ¹ - | -답 ² -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 ㉠ -답²- : 자음 뒤 결합하였고(1) ‘정’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3).
- ㉡ -답¹- : 모음 뒤 결합하였고(1), 신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3).
- ㉢ -답¹- : 자음 뒤 결합하였고(1), 도서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3).
- ㉣ -답¹- : 자음 뒤 결합하였고(1), ‘참’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3).
- ㉤ -답²- : 모음 뒤 결합하였고(1), 아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3).

7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14.6A)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 […을]

-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여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 […을] 벌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벌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⑤번 바래다¹ ㉣을 보면 ‘빛깔을 희게 하다’이다. 따라서 ‘누렇게’는 용례가 될 수 없다. 바래다¹ ㉠의 용례로 추가하여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둘다 ㉠, ㉡ 뜻 2가지가 나와 있으므로 다의어라고 볼 수 있다.
- ②번 바라다 ‘을’, 바래다¹ ㉣ ‘-을’을 필요로 한다.
- ④번 ‘바: --’라고 나와 있다.

73.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한 작업 결과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㉔에 뜻을풀이를 추가할 때 적절한 것은? [1점] (06.6)

<보 기>

:

그들도 서로 약혼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는 석림이도 {듣고} 왔었다.
 나무 장수는 여편네의 목소리를 {듣고} “여보 사람이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듣고} 아마 직접
 새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앞 강을 스쳐오는
 바보같이 그까짓 소리를 고깝게 {듣고} 그래.
 :

<국어사전>

듣다 [-따] [들어, 들으니, 듣는[듣-]] ㉔

①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㉑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
 ㉒ _____

- ①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
- ②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 ③ 기계나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 ④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
-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그는 내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에서 ‘듣다’의 의미가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이다.

①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 나무 장수는 여편네의 목소리를 듣고
 : 새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②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
 : 그들도 서로 약혼한 소문을 듣고
 :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는 석림이도 듣고
 :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74. 비슷한 뜻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모아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 제시된 1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07.9)

<보 기>

[대상 어휘]
 틈, 겨를, 사이

[분석 방법]

1. 주어진 문장의 { }에 있는 단어들을 교체해 보면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단어 앞에 *를 표시한다.
2. 문장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단어의 의미 특성을 파악한다.

[1차 분석 결과]

- ㄱ.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쉴 {틈, 겨를, 사이}이/가 없다.
- 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벽의 갈라진 {틈, *겨를, *사이}에서 물이 새요.
- ㄷ. 서울과 인천 {*틈, *겨를, 사이}에 신도시가 들어섰다.
- ㄹ. 언니와 나는 {틈, *겨를, *사이}만 나면 싸웠다.

- ① ㄱ을 보면 ‘틈’, ‘겨를’, ‘사이’는 모두 [시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② ㄱ과 ㄴ을 종합하면 ‘틈’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③ ㄱ과 ㄷ을 종합하면 ‘사이’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④ ㄷ과 ㄹ을 종합하면 ‘사이’와 ‘틈’은 [시간]의 의미를 세분해야 구별할 수 있어.
- ⑤ ㄱ~ㄹ을 종합하면 ‘겨를’은 [시간]의 의미만 지니고 있어.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ㄷ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공간의 의미에서 파악해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쉴 시간이 없다’와 같은 의미이다.
 ②번 ㄱ은 시간, ㄴ은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③번 ㄱ은 시간, ㄷ은 공간의 의미를 지닌다.
 ⑤번 보기에서 공간의 의미로 ‘겨를’이 쓰이는 경우는 모두 비문이다.

7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6A)

<보 기>

단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 ② ㉠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 :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빈개야.
- ③ ㉠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자 노력한다.
㉡ :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 ④ ㉠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 :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 ⑤ ㉠ :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 :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이 주변적 의미, ㉡이 중심적 의미이다. 서로 바뀌었다. ㉠의 뿌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의 별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번 ㉡의 빈개는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번 ㉡의 태양은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번 ㉡의 이슬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76.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14.9A)

갈-리다1 ㉠

① '갈다1 ①'의 피동사.

㉠ ▶ 멧돌에 콩이 갈리다.

② '갈다1 ②'의 피동사.

㉠ ▶ 버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2 ㉡ '갈다2'의 피동사.

㉠ ▶ 눈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1'을 보니, '갈다1'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1'과 '갈-리다2'를 보니, '갈다1'과 '갈다2'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1'을 보니, '갈-리다1'은 '갈다1'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1 ①'을 고려할 때, '갈다1 ①'의 용례로 '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2'를 고려할 때, '갈다2'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갈-리다1'과 '갈-리다2' 모두 동사라고 나와 있으니 '갈다1'과 '갈다2' 모두 동사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갈다1 ①', '갈다1 ②'에서 알 수 있다.
- ③번 '갈다1'의 피동사라고 나와 있다.
- ④번 '갈-리다1 ①'의 용례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⑤번 '눈이 깊이 갈리다'의 용례에서 추론할 수 있다.

77.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빠다	주차장에서 차를 빠다 .	대다
	(가)	널다
	적금을 빠서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빠다 .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빠다 .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빠다 .	찾다
④ 새집 냄새를 빠다 .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빠다 .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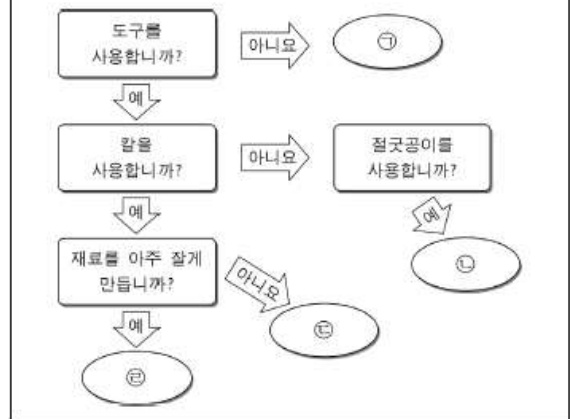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은 '풍선에서 바람을 **빠다**(↔풍선에 바람을 넣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빠다**(↔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빠다**(↔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넣었다)' 등이 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반의어는 '들다'이다(적금을 들다).

78.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1.9)

<보 기>

요리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동사들 중에 '다지다: 찳다: 썰다: 찢다' 같은 것들이 있다. 아래에서 이들의 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자.



- | | ㉠ | ㉡ | ㉢ | ㉣ |
|---|-----|----|-----|-----|
| ① | 찳다 | 썰다 | 찢다 | 다지다 |
| ② | 찳다 | 썰다 | 다지다 | 찢다 |
| ③ | 찢다 | 찳다 | 썰다 | 다지다 |
| ④ | 찢다 | 찳다 | 다지다 | 썰다 |
| ⑤ | 다지다 | 찢다 | 찳다 | 썰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찢다'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한다. 절긋공이를 사용하는 동사는 '찳다'이다. 재료를 아주 잘게 만드는 것은 '다지다'이다.

찢다 :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른다.

찳다 : 짓찧어서 가루로 만들다

다지다 : 고기,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들다.

썰다 : 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

79.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06수능)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 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u>서</u> 서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u>서</u> 버렸다.	↔ [A]
	[B]	↔ 깎이다
	기강이 <u>서</u> 야 사회가 안정된다.	↔ [C]

- | | | |
|------|----------------------------|------|
| [A] | [B] | [C] |
| ① 가다 | 가족에게 위신이 <u>서</u> 서 기뻐다. | 내리다 |
| ② 가다 | 토끼의 귀가 쫑긋 <u>서</u> 다. | 내리다 |
| ③ 가다 | 회장으로서 체면이 <u>서</u> 지 않았다. | 무너지다 |
| ④ 죽다 | 바지의 주름이 잘 <u>서</u> 다. | 무너지다 |
| ⑤ 죽다 | 친구와 같은 입장에 <u>서</u> 서 말했다. | 벗어나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A] 시계가 서다 ↔ 시계가 가다
 [B] 위신이 서다 ↔ 위신이 깎이다 / 체면이 서다 ↔ 체면이 깎이다
 [C] 기강이 서다 ↔ 기강이 무너지다

80.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9A)

크다 ① **크**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② **똥**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① ↔ 작다

작다 ㉠ **작**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①

- ① ‘크다①’과 ‘크다②’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①㉠’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②’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크다①㉢’이 ‘작다 ㉣’과 반의 관계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크다①’은 형용사, ‘크다②’는 동사이다.
 ②번 ‘크다①㉠’은 ‘길이, 넓이, 부피 높이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이고 ‘작다 ㉠’은 ‘길이, 넓이, 높이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정도보다 덜하다’이므로 가능하다.

81. <보기 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10수능)

<보기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2>

a. [설령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령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b. [그 티미 이연패를 헐따]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티미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 | | | |
|---|---|---|---|
| | ㄱ | ㄴ | ㄷ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a-ㄴ : [시켜 머거라]가 '식혀 먹어라'와 '시켜 먹어라'로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b-ㄱ : '이연패를 했다'는 것은 소리와 표기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이다. 승리로 이연패인지 패배로 이연패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c-ㄷ : '가슴이 아프다'가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지(중심의미),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지(확장된 의미) 구분이 안 가는 경우이다.

82.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기>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09.6)

<보 기>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함		
대화 상대 \ 감정 상태	불만스러움	불만스럽지 않음
불필요함	A	B
필요함		C

- ① A에는 '구시렁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② A에는 '투덜거리다'도 가능한 것 같아.
- ③ B에는 '수군거리다'를 포함시키자.
- ④ B에는 '웅얼거리다'도 가능한 것 같아.
- ⑤ C에는 '속닥거리다'를 포함시키자.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수군거리다'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만가만 이야기하다'의 의미이다. 혼자 말할 때 수군거리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므로 C가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구시렁거리다'는 '못마땅하여 군소리를 듣기 싫도록 자꾸 하다'의 의미이다.
 ②번 '투덜거리다'는 '남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자꾸 불평을 하다'의 의미이다.
 ④번 '웅얼거리다'는 '나직한 소리로 똑똑하지 아니하게 혼자 입속말을 자꾸 해 대다'의 의미이다.
 ⑤번 '속닥거리다'는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자꾸 이야기하다'의 의미이다.

83.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09수능)

<보 기>

○ **흉내/시늉**

ㄱ.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 시늉)을/를 냈다.
 ㄴ.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하랬더니 (**흉내**, 시늉)만 했다.
 ㄷ. 아이가 우는 (**흉내**, 시늉)을/를 했다.

○ **조성/조장**

ㄹ. 장터에서부터 명절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 조장)된다.
 ㅁ. 과소비를 (**조성**, **조장**)하는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
 ㅂ.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 **조장**)하여 이득을 보려는 장사꾼이 있다.

- ① ‘ㄱ’과 ‘ㄷ’을 보니, ‘흉내’는 ‘남을 따라 함’을, ‘시늉’은 ‘움직임을 꾸며 함’을 뜻하네.
- ② ‘ㄱ~ㄷ’을 보니, 호응하는 서술어를 통해서도 ‘흉내’와 ‘시늉’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겠어.
- ③ 내용상 ‘ㄱ’ 뒤에 ‘ㄴ’이 연결된다면, ‘ㄴ’의 ‘시늉’ 앞에는 ‘장사꾼’이 생략되었겠네.
- ④ ‘ㄹ’과 ‘ㅁ’을 보니, ‘조성’은 ‘만들어 이름’을, ‘조장’은 ‘더하게 함’을 뜻하네.
- ⑤ ‘ㄷ~ㅂ’을 보니, ‘조장’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어렵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장사꾼의 행동을 따라했다라는 의미로 쓰려면 ‘아이들은 장터에서 장사꾼 흉내를 냈다. 아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켰더니 장사꾼 흉내만 냈다.’라고 써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장사꾼을 따라 했다는 것, 공부하는 움직임과 우는 움직임을 꾸며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번 ‘흉내를 냈다’와 ‘시늉을 하다’에서 알 수 있다.
 ⑤번 ‘조장하다’의 목적어로 ‘과소비’, ‘위화감’ 등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 쓰였으므로 ⑤번 선지는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84. <보기>의 ㉠~㉣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 (05.6)

<보 기>

㉠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신다.
 ㉡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 ① ㉠-말하는 이 ㉡-주체 ㉢-주체
- ② ㉠-듣는 이 ㉡-주체 ㉢-주체
- ③ ㉠-듣는 이 ㉡-대상 ㉢-듣는 이
- ④ ㉠-주체 ㉡-듣는 이 ㉢-주체, 듣는 이
- ⑤ ㉠-주체 ㉡-대상 ㉢-주체, 듣는 이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 : ‘-께서’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와 ‘-시-’라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이는 ‘할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 ‘-께’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와 ‘-드리다’라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가 쓰였다. 이는 ‘어머니’라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다.

㉢ : ‘-께서’라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와 ‘-시-’라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할머니’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쓰였고 ‘-요’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상대높임 용법으로 쓰였다.

85.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문장 표현의 사례	⇒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동생이 운동을 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 '<', '>', '≥' :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 표시.
 (예) 스승 > 제자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 : 화자<주체('께서' 높임 조사, '-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화자 <청자('습니다' 상대높임 종결어미)
 ㉡ : 화자<주체('-께서'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화자 ≥ 청자('다' 종결어미)
 ㉢ : 화자>주체('이' 조사), 화자<청자('습니다' 상대높임 종결어미)
 ㉣ : 화자>주체('이' 조사), 화자 ≥ 청자('다' 종결어미)

8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6A)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 이제 오느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느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모시다'는 객체 높임 특수 어휘이다. 또한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하여 생략된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지 않다. 상대를 높이려면 '이제 오느군요'와 같은 상대높임 종결어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번 '계시다'는 주체 높임 특수 어휘이다.
 ③번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번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장에서 객체는 '너(동생)'이다.

그믐달, MOON법

87.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14수능)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계시다)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는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연세'에서 ㉡을 확인할 수 있고 '잡수시다'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께서'에서 주체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할머니).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성함'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②번 '여쭙다'는 객체를 높이는 용언이다. '댁'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④번 '모시다'는 객체를 높이는 용어이다.

⑤번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어머니). '주무시다'에서 ㉠을 확인할 수 있다.

8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9B)

<보 기>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 준비하라고 하셔.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 응.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씀하셨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간접높임법에 해당한다. 간접 높임법이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말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간접높임법의 예로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다(주어 말씀)', '할머니 귀가 밝으시다(주어 귀)',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얗게 세셨다(주어 머리)' 등이 있다. '말씀'은 높여야 할 대상인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말씀 있으셨니?'로 써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친구인 경준을 높일 필요가 없다.

③번 '선생님'이라는 객체를 높여야 하므로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④번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번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말씀하셨잖아'를 사용하여야 한다.

89.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지칭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 지칭어와 그 대상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 호칭어를, 화자와 청자, 담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은 청자나 담화 속 주체와 객체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보기 2〉

혜연: 삼촌, 어서 오세요. 좀 늦으셨네요?
삼촌: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다들 오셨니?
혜연: 아니요. 차가 밀리는지 ㉠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
삼촌: ㉡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혜연: ㉢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삼촌: 아침부터 너희 ㉣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셨겠네. 너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힘들었지?
혜연: 아니에요. 그것보다 삼촌께서 이렇게 멀리서 와 주셔서 ㉤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 ①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에서 문장의 주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③ ㉢에서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 ④ ㉣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가 아니라 '모시다'라는 객체 높임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손녀의 입장에서 '할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만약 삼촌이라는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였다면 '어머니'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②번 '어머니'는 높여야 하는 대상이므로 '계시다'라는 주체 높임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였다.
- ④번 화자인 '삼촌'이 청자인 조카를 기준으로 자신의 동생이자 조카의 어머니인 대상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지칭어 '네 어머니'를 사

용하고 있다.

⑤번 혜연의 입장에서 '삼촌'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요'라는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90.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점원: 손님, 어떤 옷을 ㉠ 찾으십니까?
손님: 셔츠를 좀 보려고요. ㉡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저희 아버지는 ㉣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그러시면 ㉤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둘러 주세요.

- ① ㉠: '-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저희'를 써서 '아버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고 있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쓴 것은 '-께서'라는 조사이다.

- ④번 간접 높임법에 해당한다. '어깨'는 '아버지'의 신체 일부에 해당하므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어깨'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을 이용하였다.
- ⑤번 '어르신'과 '모시다'라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그믐달, MOON법

91.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0B)

< 보 기 >

어머니: 진우야, 엄마 줌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 택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우: ㉡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 가실까요?
 어머니: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우: 할머니 택까지 ㉤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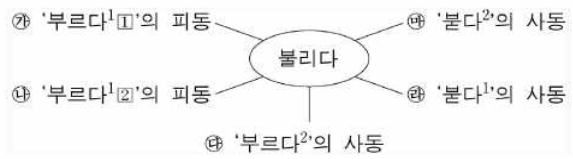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인 표현이다.
-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는 객체 높임을 위해 사용한다. (어머니를) 할머니 택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이고 '모시다'라는 특수어휘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할머니'를 높인 표현은 '택'이다.

92.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11.6)

< 보 기 >

부르다¹ ㉠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²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¹ ㉣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² ㉤ 꿀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렸다.
-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주먹밥 하나로는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게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쓰였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부르다¹ ㉡'에 해당한다.
 ②번 '부르다¹ ㉠'에 해당한다.
 ④번 '붙다²'에 해당한다.
 ⑤번 '붙다¹'에 해당한다.

93.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14.6A)

< 보 기 >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A에서는 주어만 필요한 한 자리 서술어였으나 B로 바뀌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뀐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과 ㉡의 주어 모두 '동생'인데 ㉠에서는 '동생'이 목적어로 쓰였고 ㉡에서는 '동생'이 부사어로 쓰였다.
 ③번 겹문장과는 관련이 없다. 홑문장이다.
 ④번 ㉡의 경우 '먹이다'가 사동사로 가능하다.
 ⑤번 ㉣의 경우 '낮추다'가 사동사로 가능하다.

94.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15.6A)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의 경우 '안기다'가 사동사로 쓰여서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준 것을 의미한다. ㉡의 경우 '안기다'가 피동사로 쓰여 어미 꿈이 아기 꿈을 안은 것을 아기 꿈이 어미 품에 안겼다고 쓰였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 ㉡ 모두 피동사이다.
 ②번 ㉠은 피동사, ㉡은 사동사이다.
 ③번 ㉠, ㉡ 모두 사동사이다.
 ④번 ㉠, ㉡ 모두 사동사이다.

95. <보기>의 ㉠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 < 보 기 >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使動)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가)에서는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게 하다'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 ①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 ②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 ③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 ④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 ⑤ 정원은 집에 초대한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찬물'이라는 것이 자기를 직접 유리잔에 채웠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는 '다정'이가 직접 찬물을 따랐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번 '어머니'께서 '나'에게 직접 밥을 먹이셨다와 '나'로 하여금 밥을 먹게 만드셨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 ③번 '아버지'께서 직접 '진수' 등에 '동생'을 업히셨다와, '진수'로 하여금 '동생'을 업게 만드셨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 ④번 '그녀'가 직접 '경미' 발에 발레화를 신겼다와 '경미'로 하여금 '경미' 스스로가 발레화를 신게 하셨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 ⑤번 '정원'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앨범을 열어 보여줬다와 친구들에게 앨범을 줘서 친구들 스스로가 보게끔 하였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

96.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6.3A)

— < 보 기 > —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능동문	피동문
㉠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
㉡	두 학생이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
㉢	낙엽이 바람에 난다.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
㉣	해당 사례 없음.	오늘은 날씨가 갑자기 풀렸다.

- ① ㉠의 피동문은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② ㉠과 ㉡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 ③ ㉡과 ㉢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④ ㉢은 자동사를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⑤ ㉣은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③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능동문에서 '눈'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나 피동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 ②번 능동문의 주어인 '눈'과 '두 학생'이 피동문에서 모두 '눈에', '두 학생에게'로 부사어로 쓰였다.
- ④번 '날다'라는 자동사를 '날리다'로 써서 피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97. <보기>의 ㉠~㉢를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점]
(05.6)

<보 기>

사람들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을 한 시점을 비교하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인식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진행', '완료'로 구분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시간 표현의 예]
 •나는 밥을 ㉠ 먹고 있다.
 •어제 나는 박물관에 ㉡ 갔었다.
 •우리는 한글을 오랫동안 ㉢ 사용해 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 : 현재 먹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
 ㉡-㉢ : '어제'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과거를 나타내었다. 또한 '갔었다'에서 완료임을 알 수 있다.(진행이라면 '가는 중이다', '가고 있다' 라고 써야 함)
 ㉢-㉢ : 과거의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행임을 알 수 있다.

98.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수능B)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주어는 '특징'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는 것이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구매'와 '구입' 어휘 중복 사용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나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하였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③번 '여간'은 '아니다'라는 부정어와 쓰여야 한다.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④번 '유해 물질'의 서술어가 없다. '새 기계는 유해 물질을 줄여주고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⑤번 '형언하다'는 부정어와 쓰여야 한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99.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9B)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 ④ ㉣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어떤 해결책인지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정도로 수정해주면 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남에게' 부사어를 넣었다.
 ②번 '친구와' 부사어를 넣었다.
 ④번 '선생님을' 목적어를 넣었다.
 ⑤번 '그는' 주어를 넣었다.

100.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9A)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쓰면 지금 언니가 교복을 갈아 입는 중인지, 언니의 현재 복장이 교복인지 알 수 없어서 고치기 전 문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장식물이 예쁘다는 의미를 잘 표현해준다.
 ②번 다는 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일부가 오지 않았다는 의미를 잘 표현해준다.
 ④번 비교 대상인 나와 동생이 '나와 동생 중에서'에서 잘 드러난다.
 ⑤번 '내'가 웃으면서 인사했다는 내용을 잘 표현해준다.

101.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6B)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p>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p> <p>①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p> <p>→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 ①</p>	
<p>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p> <p>②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p> <p>→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p>	
<p>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p> <p>③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p> <p>→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p>	
<p>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p> <p>④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p> <p>→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p>	
<p>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p> <p>⑤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p> <p>→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p>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기대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으므로 '사람에게'를 넣어줘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②번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을 차거나 야구를 한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④번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나, '친구의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⑤번 '누구든 자신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102.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9A)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넣었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으므로 '물에'를 넣었다.

105.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학습지

과제: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게 아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④
㉤	이중 피동어를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여간'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여 쓰인다.
 ②번 '자전거를'라는 목적어가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빠져있다.
 ③번 '왼쪽'과 '좌회전'에서 의미의 중복이 일어난다.
 ⑤번 '-리다'와 '-(어)지다' 이중 피동이 사용되었다.

106.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원래 문장	표현하려는 의미	수정한 문장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	㉢
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	㉤

- ①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② ㉡: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③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
 ④ ㉣: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
 ⑤ ㉤: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④번 선지같이 쓰면 이는 윤서가 돌아온 시점이 아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민수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아침에 말했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믐달, MOON법

107.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②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 ⑤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 '성실한, 그의 동생'이나 '그의 성실한 동생'으로 써야 하고 수식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써야 한다.

108. <보기>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ㄱ~ㄴ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0A)

- < 보 기 >
- ㄱ. 과거 시제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로,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을 통해 실현된다.
 - ㄴ. '-았/었/였-'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일 수 있다.
 - ㄷ.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 사용하기도 한다.
 - ㄹ.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ㅁ.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① ㄱ: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
- ② ㄴ: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
- ③ ㄷ: 지난여름에는 정말 덥더라.
- ④ ㄹ: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
- ⑤ ㅁ: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①의 예문은 미래에 있을 일을 추측한 경우이다. 'ㄱ'의 예문으로는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등이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전에는 그 집에 살았는데 현재는 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번 지난여름이 더웠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번 방학이라는 과거에 읽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번 여름이라는 과거에 푸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9.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 (가) 조사의 잘못된 사용 : 직접 인용일 때는 '라고'를 붙이고 간접 인용일 때는 '고'를 붙인다. 따라서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아니면 '나는 그에게 "곧 가게"라고 말했다'로 써야 한다.
- (나) 의미 중복 : '공기를'과 '환기'에서 의미 중복이 일어난다.
- (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 '발생 원인'이라는 목적어와 맞는 서술어가 누락되었다.

1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0B)

< 보 기 >

우리말 특정 부사어는 서술어와의 호응이 매우 고정적이다.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 ①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 ② 나는 나대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 ③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하였다.
- ④ 이런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 ⑤ 이 시험에서는 반드시 직접 쓴 글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 ③번 '차마'는 부정의 의미와 호응해서 써야 한다.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라고 써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절대로'는 부정의 의미와 호응해서 써야 한다.
- ②번 '여간'은 부정의 의미와 호응해서 써야 한다.
- ④번 '비단'은 부정의 의미와 호응해서 써야 한다.

113. <보기>의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5.10B)

< 보 기 >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의 부정을 나타내는 '안' 부정문과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 부정문이 있다.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자.

주체의 의지가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긴 부정문입니까?	⇨ 아니요	㉡
↓예		
㉣		

	㉠	㉡	㉣
①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②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③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동생이 못 잔다.
④	동생이 자지 못한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자지 않는다.
⑤	동생이 못 잔다.	동생이 안 잔다.	동생이 자지 못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ㄱ : 주체의 의지가 아니므로 '못'을 써서 '동생이 못 잔다'나 '동생이 자지 못한다' 등으로 써야한다.
ㄴ : 'ㄴ'과 'ㄷ'은 '안' 부정문을 써야한다. 이때 'ㄴ'은 짧은 부정문이므로 '동생이 안 잔다'라고 써야한다.
ㄷ : '안' 부정이자 긴 부정문이므로 '동생이 자지 않는다'라고 써야한다.

114. <보기>의 ㉠~㉥은 모두 중의적인 문장이다. 괄호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수정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10)

< 보 기 >

㉠ 교실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 현규와 숙희는 어제 결혼하였다.
(→ 현규가 숙희의 남편이 되었다는 의미로)

㉢ 이것은 선생님의 그림이다.
(→ 그림 속 인물이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 아버지께서 굴과 사과 두 개를 가져오셨다.
(→ 과일 세 개 중 두 개가 사과라는 의미로)

㉤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 표정이 밝은 사람은 그녀라는 의미로)

- ① ㉠ : '않았다'를 '못했다'로 바꾼다.
- ② ㉡ : '현규와 숙희는'을 '현규는 숙희와'로 교체한다.
- ③ ㉢ : '선생님의'를 '선생님을 그린'으로 교체한다.
- ④ ㉣ : '굴과 사과 두 개'를 '굴 한 개와 사과 두 개'로 바꾼다.
- ⑤ ㉤ : '밝은 표정으로'를 '사람들에게'의 뒤로 옮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교실에 학생들이 다 오지 못했다'도 일부가 못 온 건지, 학생 전부가 못 온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의적 의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모두 오지 않았다'라고 바꿔 써야 한다.

115.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4.9B)

질문 :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ㅍ]과 [ㅂ]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답변 :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 을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번 ‘무릎이야[무르피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이야’가 와서 마지막 받침 ‘ㅍ’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 경우이다. ‘무릎 아래[무르 바래]’는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아래’가 오게 되어 받침(ㅍ)을 대표음(ㅂ)으로 바꾸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경우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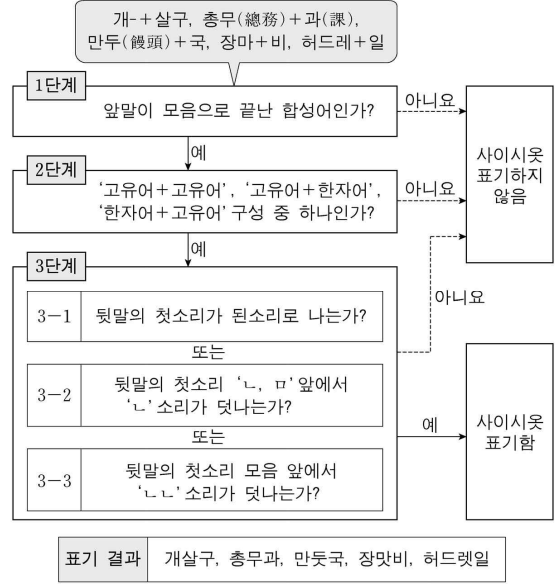
㉡번 ‘서넛이나[서넛키나]’는 ㉠에 해당한다. ‘서넛에서[서넛케서]’도 ㉠에 해당한다.

㉢번 ‘걸으로[거트로]’는 ㉠에 해당한다. ‘걸아가미[거다가미]’는 ‘아가미’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 ‘배꽃이[배꼬치]’는 ㉠에 해당한다. ‘배꽃 위[배꼬 뒤]’는 ㉡에 해당한다.

㉤번 ‘빛에[비제]’는 ㉡에 해당한다. ‘빛이며[비지며]’도 ㉡에 해당한다.

116.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9B)



- ㉠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정답 선택지 해설>

㉣번 [장마뻘]라고 발음 되므로 1, 2, 3-1 단계를 만족시켜 ‘장맛비’라고 쓴다.

<오답 선택지 해설>

㉠번 ‘개살구’는 접두사 ‘개’에 ‘살구’가 붙은 파생어이다.

㉢번 [만두꼭]이라고 발음 된다.

㉤번 [허드레닐]로 ‘ㄴ ㄴ’이 덧나 발음 된다.

그믐달, MOON법

119.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13.9평)

<보 기>

ㅇ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ㅘ, ㅙ, ㅚ, ㅜ, ㅠ'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ㅇ 'ㅘ, ㅙ'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

- ㉠ ㉡ ㉢
- ① 패다 팬 패었다
 ② 패다 팬 패었다
 ③ 패다 패인 패었다
 ④ 패이다 팬 패었다
 ⑤ 패이다 패인 패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 : 'ㅏ'와 'ㅣ'가 줄어 'ㅘ'로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패다'이다.
 ㉡ : 'ㅏ'와 'ㅣ'가 줄어 'ㅘ'로 발음될 수 있다. 따라서 '팬'이다.
 ㉢ : '패었다'가 줄어 '팠다'라고 볼 수 있다.

120.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4.9A)

<보 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 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님]'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④ '급행열차[그팡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그팡널차]
 ㉢ : 'ㅎ'과 'ㅇ'이 축약되어 'ㅍ'이 되었다.
 ㉣ :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가랑님]
 ㉢ :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 : 음절의 끝자리 규칙에서 'ㅍ'이 'ㅓ'로 교체되었다.
 ②번 [갑찌다]
 ㉣ : 'ㅓㅓ'에서 'ㅓ'이 탈락하였다.
 ㉠ : 'ㅓ'이 'ㅕ'로 교체되었다.
 ③번 [수타다]
 ㉠ : 술[술]으로 'ㅛ'이 'ㅕ'로 교체되었다.
 ㉢ : ㉠에서 변화된 'ㅕ'이 'ㅎ'을 만나 축약되어 'ㅛ'이 되었다.
 ⑤번 [서른너덜]
 ㉢ :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 : 음절의 끝자리 규칙에서 'ㄴㅓ'중 'ㅓ'이 탈락되었다.

121.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4수능A)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뺨],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지], 만형 → [마텥]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따뜨따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똥[똥]'에서 일어났고 ㉢의 자음 축약 현상이 '뜯[뜯]'로 발음된 부분에서 일어났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에서는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뀐다.
 ②번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은 자음 축약 현상이다.
 ④번 ㉡만 해당한다.
 ⑤번 ㉡은 음운의 첨가 현상이 아니라 음운의 교체 현상이다. ㉢은 음운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다.

122.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14수능B)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syllable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곁-웃[거둔],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당뇨], 흙-이불[흔니불]

- | | | |
|---|-------|-------|
| | ㉠ | ㉡ |
| ① | [꼰니랑] | [꼬도목] |
| ② | [꼰니랑] | [꼬초목] |
| ③ | [꼰니랑] | [꼰노목] |
| ④ | [꼬디랑] | [꼬초목] |
| ⑤ | [꼬디랑] | [꼬도목]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꼰니랑] : '꽃'과 '이랑'이 합쳐져 '꽃이랑'이 되었다. 이 때 앞 단어 '꽃'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인 경우이기 때문에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랑'이 된다. '꼰니랑'에서 'ㄷ'이 'ㄴ'에 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비음화 현상) [꼰니랑]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꽃이랑 → 꼰니랑 → 꼰니랑)
 [꼬도목] : '꽃'과 '오목'이 합쳐져 '꽃오목'이 되었다. 이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꽃은 [꼰]으로 발음된다. 이후 'ㄷ'이 뒤의 음절로 넘어가서 발음이 된다. (꽃오목 → 꼬도목)

그믐달, MOON법

1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6B)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높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얼혀'를 '얼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붙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노피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 연음현상
 ㉡ : 축약 현상
 ㉣ : 구개음화 현상

124.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1수능)

— <보 기> —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흩이불

- ① ㉡를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병'이 아니라 '물병'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깍뚜기'가 아니라 '깍뚜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 '깍둑 + 이'에서 알 수 있듯 '깍뚜기'는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따라서 ㉣의 경우라 볼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모음 뒤 : 어깨 / ㄴ 뒤 : 잔뜩 / ㄹ 뒤 : 살짝 / ㅁ 뒤 : 듬뿍 / ㅇ 뒤 : 몽땅
 ④번 둘 이상의 단어가 만나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단어가 된 경우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물 + 병'과 '칼 + 날'은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125.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9)

<보 기>

㉠ 맑-도록 [ㄱ] 늡-지 [ㄱ] 읽-지 [ㄱ]
 ㉡ 맑-게 [ㄷ] 늡-고 [ㄷ] 읽-거나 [ㄷ]
 ㉢ 닭-같이 [ㄱ] 흙-과 [ㄱ] 철-과 [ㄱ]
 ㉣ 앞-도록 [ㄷ] 늡-지 [ㄷ] 뺏-도록 [ㅂ]
 ㉤ 앞-게 [ㄷ] 늡-고 [ㄷ] 뺏-게 [ㅂ]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ㄷ'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ㄷ'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ㄷ'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④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ㄷ'의 발음은 '앞-', '늡-'의 경우와 '뺏-'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ㄷ'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 동일 용언 어간의 'ㄷ'의 발음은 'ㄷ'이나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서로 같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ㄱ'으로 발음되나 'ㄱ'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는 'ㄷ'로 발음된다.
 ②번 모두 'ㄱ'으로 발음 된다.
 ③번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ㄷ'로 발음하나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경우 'ㄱ'으로 발음한다.
 ㉣번 '앞-', '늡-'의 경우 'ㄷ'로 발음되나 '뺏-'의 경우 'ㅂ'으로 발음된다.

126.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9B)

<보 기>

선생님 : 오늘은 겹받침 'ㄷ'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ㄷ'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ㄷ]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ㄷ'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ㄱ'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어간의 겹받침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 자, 그러면 겹받침 'ㄷ'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 _____ [가]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만'의 앞이므로 자음의 앞, ㉠에 해당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자음 'ㄱ'의 앞인 경우
 ②번 어간 겹받침 'ㄷ'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 소리가 'ㄱ'인 경우
 ③번 어말인 경우
 ④번 모음으로 시작한 조사의 앞인 경우

127. <보기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06수능)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탁이(×) → 오뎅이(○), 쌍둥이(×) → 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돈(查頓)	사둔	밭~, 안~
삼촌(三寸)	삼춘	외~, 처~

<보기 2>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총깡총'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흰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므로 '삼춘'이 아니라 '삼촌'을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128.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 (15.9B)

<보 기 >

[제19항]

○어간에 '-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굳이, 같이㉠

[제25항]

○'- 하다'가 붙는 어근에 '- 히'나 '-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꾸준히, 깨끗이㉡

○부사에 '-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더욱이, 생긋이㉢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 ㉢ : '일찍'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다. '더욱이' 또한 '더욱'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 : '급하다'가 부사가 된 경우이다.

②번 ㉡ : '방긋'이라는 부사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다.

③번 ㉡ : '많다'의 어근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다.

④번 ㉡ : '깊다'의 어근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다.

129.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5.9A)

< 보 기 >

학 생: '식물'이 [상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 조음 방식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파열음	ㅂ	ㄷ	ㄱ
비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입는[임는]', '뜯는[띯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앞 자음의 조음 방식(파열음 → 비음)
 식물[상물]: 앞 자음의 'ㄱ'이 'ㅇ'로 변했다. 파열음인 'ㄱ'이 비음인 'ㅇ'으로 변하였다.
 입는[임는]: 앞 자음의 'ㅂ'이 'ㅁ'으로 변했다. 파열음인 'ㅂ'이 비음인 'ㅁ'으로 변하였다.
 뜯는[띯는]: 앞 자음의 'ㄷ'이 'ㄴ'으로 변했다. 파열음인 'ㄷ'이 비음인 'ㄴ'으로 변하였다.

130. <보기>는 음의 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표준 발음법에 의해서 판단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 - 음의 동화]

- 받침 'ㄷ, ㅌ(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ㄱ), ㅂ(ㅍ, ㅃ, ㅍ, ㅃ)'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받침 'ㄹ, ㅇ' 뒤에 연결되는 'ㄴ'은 [ㄴ]으로 발음한다.
- 'ㄴ'은 'ㄷ'의 앞이나 뒤에서 [ㄷ]로 발음한다. 단, 일부 한 자어의 경우 예외가 있다.
-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① '미달이'는 'ㄷ'이 모음 'ㅣ'에 동화되므로 [미다지]가 표준 발음이다.
- ② '답는'은 'ㄷ'이 'ㄴ'에 동화되므로 [단는]이 표준 발음이다.
- ③ '침략'은 'ㄷ'이 'ㄹ'에 동화되므로 [침랏]이 표준 발음이다.
- ④ '칼날'은 'ㄴ'이 'ㄷ'에 동화되므로 [칼랄]이 표준 발음이다.
- ⑤ '신문'은 'ㄴ'이 'ㄹ'에 동화되므로 [싸문]이 표준 발음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자음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 '신문'은 [싸문]이 표준 발음이다.

그믐달, MOON법

131.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입니다. (가)~(다)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변동 중 '축약'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농고'가 [노코]로 발음되는 (가) 거센소리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 '보아'가 '봐'로 음절이 줄어들 때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 (배) 어간에서만 축약, 어미에서만 축약, (세)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셨다'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었-'이 '-셨-'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고등학교 (가) 입학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나) 좋다며 반갑게 인사를 (다) 나눴다. 눈에 (라) 띄게 모습이 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마음만은 여전히 (마) 보였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을 기억하며 헤어졌다.

	(가)	(나)	(다)
①	b	a, d	c, e
②	c	a, b	d, e
③	a, b	d	c, e
④	a, b	c, e	d
⑤	a, e	b, d	c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 : '입학'에서 'ㅂ'과 'ㅎ'이 축약되어 [이팍]으로 발음된다. (가)

㉡ : '좋다'에서 'ㅎ'과 'ㄷ'이 축약되어 [조타]로 발음된다. (가)

㉢ : '나눴다'는 '나누었다'에서 '누'와 '었'이 축약되어 '나눴다'가 된다. 어간은 '나누-'이고 어미는 '-었다-'이므로 어간과 어미의 축약으로 보아야 한다. (다)

㉣ : '띄게'는 '뜨이게'에서 '뜨'와 '이'가 축약되어 '띄게'가 되는 것이다. 어간은 '뜨이-'이고 어미는 '-게'이므로 어간에서만 축약으로 보아야 한다. (나)

㉤ : '보였다'는 '보이였다'에서 '이'와 '어'가 축약되어 '보였다'가 되는 것이다. 어간은 '보이-'이고 어미는 '-였다'이므로 어간과 어미의 축약으로 보아야 한다. (다)

13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ㄴ'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입]'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뒤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보기>

ㄱ. 그는 날렵한 (가) 콧날[곤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기던 (나)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ㄷ. 그 사람은 회사의 (다)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라) 물약[물략]을 지어졌다.

ㅁ. 그녀는 (마) 잇물[인물]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③ ㉢는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④ ㉣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략]'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⑤ ㉤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막일 → 막닐(ㄴ첨가) → 망닐(비음화)]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코 + 날'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한다.

- ②번 '색 + 연필'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모음이 'ㄱ'이다.
- ③번 [물약 → 물낙(ㄴ첨가) → 물락(유음화)]
- ④번 '이 + 몸'에서 사이 시옷을 넣어 '잇몸'으로 쓴다.

133.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ㅌ, ㅍ, ㅎ), ㄹ(ㄹ, ㄷ, ㅌ, ㅍ)'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ㅌ, ㅍ, ㅎ), ㄹ(ㄹ, ㄷ, 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ㄹ,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앞마당'은 18항이 적용되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 ② '늦가을'은 23항이 적용되어 [느까을]로 발음된다.
- ③ '꽃망울'은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꼰망울]로 발음된다.
- ④ '맛먹다'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만먹따]로 발음된다.
- ⑤ '훈남시'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훈남씨]로 발음된다.

<정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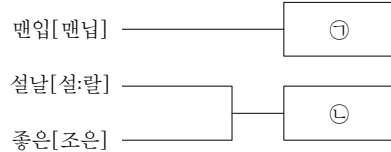
③번 [꽃망울 → 꼰망울(음절의 끝소리 규칙) → 꼰망울(18항)]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앞마당 → 암마당(음절의 끝소리 규칙) → 암마당(18항)]
- ②번 [늦가을 → 느까을(음절의 끝소리 규칙) → 늦까을(23항)]
- ④번 [맛먹다 → 만먹따(음절의 끝소리 규칙) → 만먹따(18항) → 만먹따(23항)]
- ⑤번 [훈남시 → 훈남씨(음절의 끝소리 규칙) → 훈남씨(18항) → 훈남씨(23항)]

134. 다음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의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교체, 축약, 첨가, 탈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1. ㉠에는 '맨입'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
- 2. ㉡에는 '설날'을 발음할 때와 '좋은'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함께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

자료

논일[논닐], 나뭇잎[나문닙], 칼날[칼랄]
늦여름[느녀름], 당은[다은], 닳는[달른]

- | | |
|----------|----------|
| ㉠ | ㉡ |
| ① 논일[논닐] | 늦여름[느녀름] |
| ② 당은[다은] | 닳는[달른] |
| ③ 칼날[칼랄] | 나뭇잎[나문닙] |
| ④ 논일[논닐] | 닳는[달른] |
| ⑤ 당은[다은] | 칼날[칼랄] |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맨입[맨닙] : ㄴ첨가 현상
설날[설랏] : 유음화 현상
좋은[조은] : ㅎ탈락 현상

논일[논닐] : ㄴ첨가 현상
나뭇잎[나문닙] : 나문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나문닙(ㄴ첨가) → 나문닙(비음화)

칼날[칼랄] : 유음화 현상

늦여름[느녀름] : 느녀름(음절의 끝소리 규칙) → 느녀름(ㄴ첨가) → 느녀름(비음화)

당은[다은] : ㅎ탈락 현상

닳는[달른] : 달는(ㅎ탈락) → 달른(유음화)

그믐달, MOON법

135. <보기>에서 설명한 음운 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15.10A)

< 보 기 >

동화란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닮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

- ① ‘붙이다’는 왜 [부티다]가 아니라 [부치다]로 소리 날까?
- ② ‘집안일’은 왜 [지바닐]이 아니라 [지반닐]로 소리 날까?
- ③ ‘권력’은 왜 [권력]이 아니라 [퀄력]으로 소리 날까?
- ④ ‘먹는다’는 왜 [멍는다]로 소리 날까?
- ⑤ ‘굳이’는 왜 [구지]로 소리 날까?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ㄴ첨가현상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구개음화
③번 유음화
④번 비음화
⑤번 구개음화

136. 다음은 ‘안다’의 표준 발음에 관해 어느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문 “아기를 안다[안:따].”와 “그 사람을 잘 안다[안:다].”에서 ‘안다’의 표준 발음이 다른 이유는 뭘까?

탐구 (1) 음운 환경이 유사한 단어를 된소리 발음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한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신발을) 신다[신:따]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 (하늘을) 난다[난:다]
어간 어미 신- -다 -고 -어서	어간 어미 날- -다 -고 -아서

(2) 표준발음법 규정을 확인하여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결론 “그 사람을 잘 안다.”의 ‘안다’가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 _____

- ① ‘안다’에 대한 개인의 발음 습관 차이 때문이다.
- ② ‘안’이 길게 발음되어 ‘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③ ‘안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표현 의도 때문이다.
- ④ ‘안다’에서 ‘다’의 ‘ㄷ’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안다’에서 ‘안’의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알다’의 어간은 ‘알-’이고 어미는 ‘-다’이다. ‘안’의 ‘ㄴ’은 어간 받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다’가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따]가 아니라 [안:다]라고 발음해야 한다.

137. <보기>의 ㉔와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오늘 국어 시간에 두 가지 음운 규칙을 배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이 [입]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우리말 받침으로 소리 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칙은 비음화인데 '밥만'이 [밤만]이 되는 것처럼 'ㄱ, ㄷ, ㅂ'이 'ㄴ, ㅁ' 앞에서 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이제 ㉔ '꽃눈'이 [꼰눈]으로 소리 나는 현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

    graph TD
      A[꽃눈] --> B["[꼰눈]"]
      B --> C["[꼰눈]"]
      C --- D[비음화]
      
```

- ① 끝까지[끝까지] ② 부억도[부억또] ③ 눈약[눈낙]
 ④ 놓는[논는] ⑤ 덮밥[덱밥]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놓는 → 논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논는(비음화)

<오답 선택지 해설>
 끝까지 → 끝까지(음절의 끝소리 규칙)
 부억도 → 부억도(음절의 끝소리 규칙) → 부억또(된소리 되기)
 눈약 → 눈낙(ㄴ첨가)
 덮밥 → 덱밥(음절의 끝소리 규칙) → 덱뺨(된소리 되기)

138. <보기>를 참고하여 철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0A)

< 보 기 >

○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현의 최고점 위치 입술의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입의 개폐) 고모음(폐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반개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개모음)	ㅙ	ㅛ	ㅜ	ㅝ

철수: 영희야, 넌 '게'와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니? 난 잘 안 돼서 말할 때마다 머뭇거리게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개'를 발음할 때는 '게'와 달리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려야 해
-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개'를 발음할 때는 '게'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게'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게'와 '개'의 차이는 혀의 높이이다. '개'를 발음할 때에는 '게'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그믐달, MOON법

139. <보기>를 바탕으로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0B)

< 보 기 >

[표준 발음법 - 받침의 발음]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ㄷ’, ‘ㄹ’, ‘ㄷㄹ’, ‘ㅂ’,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으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제10항을 보니, ‘뭉’을 [목]으로 발음해야겠군.
- ② 제10항을 보니, ‘앉는’을 [안는]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제14항을 보니, ‘활은’을 [할튼]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제14항을 보니, ‘없어서’를 [업써서]로 발음해야겠군.
- ⑤ 제14항을 보니, ‘여덟이다’를 [여더리다]로 발음해야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14항에 따르면 [여더비다]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어말이기 때문에 ‘목’으로 발음한다.
 ②번 앉는 → 안는(자음 앞)
 ③번 활은 → 할튼(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
 ④번 없어서 → 업써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140.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수능B)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㉔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㉑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㉒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음:는], 닭지[닥찌], 읊기[읍끼], 밝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㉔를 지키기 위해 ㉑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㉔를 지키기 위해 ㉑이 적용되었다.
- ③ ‘닭지[닥찌]’는 ㉔를 지키기 위해 ㉒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㉔를 지키기 위해 ㉑, ㉒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밝는[밤:는]’은 ㉔를 지키기 위해 ㉑, ㉒이 모두 적용되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받침 발음의 규정이다. ㉑만 적용되어 ‘ㄴㅂ’ 중 ‘ㄴ’이 탈락되어 ‘ㅂ’만 남아 ‘밤’으로 보아야한다. ([밤:는]은 비음화이긴 하나 받침 발음의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ㄱ’에서 ‘ㄴ’이 탈락하였다.
 ②번 ‘ㄷ’에서 ‘ㄴ’이 탈락하였다.
 ③번 ‘ㄱ’이 ‘ㄴ’으로 교체되었다.(탈락으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자. 된소리 받침은 겹받침이 아니다.)
 ④번 ‘ㄷㅂ’에서 ‘ㄴ’이 탈락되었고 ‘ㅂ’이 ‘ㅃ’으로 교체되었다.

141. <보기>는 겹받침 ‘리’의 표준 발음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3)

- < 보 기 > —
- ㉠ ‘리’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 받침 ‘리’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과 ‘ㅎ’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한다.
 - ㉣ ‘리’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 받침 ‘리’은 ‘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 ① ㉠: 햇살이 눈부시게 밝다[막따].
- ② ㉡: 밝게[발깨] 웃으며 인사하다.
- ③ ㉢: 그는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발곶따].
- ④ ㉣: 전등의 밝기[발끼]를 낮추다.
- ⑤ ㉤: 동쪽에서 날이 밝는다[방는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밝기’에서 ‘기’는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아니다.

142. <보기>와 같은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16.3A)

— < 보 기 > —

[활동 과제]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다.
a: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b: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c: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d: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다음 사례가 ㉠~㉣ 중, 어떤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자.

웃하고[오타고] 홀이불[혼니불]

	웃하고[오타고]	홀이불[혼니불]
①	a, c	a, b
②	a, d	a, c
③	a, d	b, c
④	b, c	b, d
⑤	b, c	c, d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웃하고 → 옴하고(음절의 끝소리 규칙 ㉠) → 오타고(축약 ㉡)

홀이불 → 혼이불(음절의 끝소리 규칙 ㉠) → 혼니불(ㄴ첨가 ㉢) → 혼니불(비음화 ㉣)

그믐달, MOON법

143.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6A)

< 보 기 >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듣+고 → [듣꼬] ㉡ 놓+고 → [노코]
 ㉢ 훔+네 → [훔레] ㉣ 뿔+느라 → [뿔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 _____ [가]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ㄷ’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ㅂ’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ㅂ’이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다. 동화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된소리 규칙이지 동화가 아니다.
 ②번 자음 축약이지 동화가 아니다.
 ③번 탈락(ㄹㅌ에서 ‘ㄷ’ 탈락) 및 유음화이다. 설명이 잘못되었다.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았다.
 ⑤번 탈락(ㄹㅂ에서 ‘ㅂ’ 탈락) 및 된소리 규칙(ㄷ→ㄸ)이다.

144.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6.6B)

< 보 기 >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ㄹ, ㅂ’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겠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훔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얹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가슴에) 품을 적에’는 ㉢에 해당한다.
 ②번 ‘(두께가) 얇을지라도’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번 ‘(신을) 신겠네요’는 ㉠에 해당한다. ‘(땅을) 밟지도’는 ㉢에 해당한다.
 ④번 ‘(남들이) 비웃을지언정’은 ㉢에 해당한다. ‘(먼지를) 훔던’은 ㉡에 해당한다.

145.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3점] (16.9A)

< 보 기 >

국어에는 거센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밥하고[바과고] 떡이다.
 ㉡ 옷에 흘까지[흐까지] 묻히고 시내를 쏘다녔다.
 ㉢ 우리는 손을 잡고[잡꼬] 마냥 즐거워하였다.
 ㉣ 그는 고전 음악을 즐겨 들는다[듣는다].
 ㉤ 칼날[칼랄]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① ㉠의 예 : 먹히다, 목걸이
- ② ㉡의 예 : 값싸다, 닭똥
- ③ ㉢의 예 : 군세다, 숨이불
- ④ ㉣의 예 : 겁내다, 맨입
- ⑤ ㉤의 예 : 잡히다, 설날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 : 거센소리되기 - 먹히다[머키다], 잡히다[자피다]
 ㉡ : 자음군 단순화 - 값싸다[갑싸다], 닭똥[닥똥]
 ㉢ : 된소리 - 목걸이[모꺼리], 군세다[군세다]
 ㉣ : 비음화 - 겁내다[검내다],
 ㉤ : 유음화 - 설날[설랄]
 'ㄴ'첨가 : 숨이불[숨니불], 맨입[맨닙]

146.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16.9B)

< 보 기 >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말이[바치]
 ㉡ 받침 'ㄷ, ㅌ(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단이[미다지]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걷다'의 '같이'는 ㉠에 따라 '티'를 [치]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티'를 [치]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이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이므로 '티'를 'ㄷ'으로 바꾸어 연음하여 [소치나]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에 해당한다. '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번 ㉡에 해당한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④번 ㉢에 해당한다. '히'는 피동 접미사이다.
 ⑤번 ㉣에 해당한다.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그믐달, MOON법

147.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6.10A)

< 보 기 >

비음화는 ㉠ 흡받침 또는 쌍받침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의 일곱 자음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 결받침이 그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깎는[깡는] | 흡만[흥만] |
| ② 끝물[끈물] | 앉자[안짜] |
| ③ 듣는[튼는] | 읍는[음는] |
| ④ 솟내[순내] | 달은[다른] |
| ⑤ 앞마당[암마당] | 값이[갑씨]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깎는 → 깡는(‘ㄱ’이 ‘ㄱ’으로 교체) → 깡는(비음화)
흡만 → 흥만(‘ㄹ’ 중 ‘ㄹ’ 탈락) → 흥만(비음화)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끝물 → 끈물(‘ㅍ’이 ‘ㄷ’으로 교체) → 끈물(비음화) ㉠
앉자 → 안자(‘ㄴㅅ’ 중 ‘ㅅ’ 탈락) → 안짜(된소리)
③번
듣는 → 튼는(비음화)
읍는 → 음는(‘ㄹㅍ’ 중 ‘ㄹ’ 탈락) → 읊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읊는(비음화)
④번
솟내 → 순내(‘ㅅ’이 ‘ㅅ’으로 교체) → 순내(비음화) ㉠
달은 → 다른(‘ㄹㅎ’ 중 ‘ㅎ’ 탈락) → 다른(유음화)
⑤번
앞마당 → 암마당(‘ㅍ’이 ‘ㅂ’으로 교체) → 암마당(비음화) ㉠
값이 → 갑씨(연음)

148.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6.10)

< 보기 1 >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ㅊ ㅋ ㆁ 나 ㄷ ㅌ ㄱ ㆁ ㄷ ㅌ ㄱ ㆁ’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보기 2 >

- 긍정적인 마음을 ㉠ 가져야[가져야] 한다.
- ㉡ 혈의[허비]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다.
- 젊은이들에게 ㉢ 희망[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다.
- 문화 유적에는 조상들의 ㉣ 지혜[지혜]가 담겨 있다.
- ㉤ 우리의[우리에]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다만 3’에 의해 [희망]으로 발음하여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다만 1’에 해당.
②번 ‘다만 2’에 해당. 연음.
④번 ‘다만 2’에 해당.
⑤번 ‘다만 4’에 해당. 조사 ‘의’.

149.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한 것은? [3점] (16수능)

-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웃고름 → [온꼬름]
- ㉣ 닭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홀꺼나]

- ①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값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얕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만 해당한다.
②번 ㉡과 ㉣만 해당한다.
④번 비음화 현상은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다. 설명이 잘 못 되었다.
⑤번 ㉣만 해당한다.

150.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16수능B)

- <보 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스'은 [씨]으로 발음한다. ㉠
 -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ㅂ]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러]
②	몹+을	㉠	[목술]
③	흙+만	㉡, ㉢	[흑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ㄹㄱ'에서 'ㄹ'이 탈락한 것은 ㉤에 해당하고 'ㄱ'과 'ㅎ'이 만나 'ㅋ'이 된 것은 ㉣에 해당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ㄹㅅ'에서 'ㅅ'이 탈락한 것은 ㉤에 해당한다. 그 후 연음된 것은 ㉣에 해당한다.
②번 ㉣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목술]이라고 발음하여야 한다.
③번 'ㄹㄱ'에서 'ㄹ'이 탈락한 것은 ㉤에 해당한다. 그 후 비음화된 것은 ㉣에 해당한다.
④번 'ㅂㅅ'에서 'ㅅ'이 탈락한 것은 ㉤에 해당한다.

그믐달, MOON법

151.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16수능B)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ㅁ), 사랑니(사랑+이)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옷소매'와 '밥알'은 모두 합성어에 해당하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경우이다.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올소매]와 [바발]이라고 적어야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잎 + -아리'로 파생어에 해당하고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얼 + -음'은 파생어에 해당하고 어법에 맞춰 적은 경우이다.
 ②번 '말 + 소'가 '마소'가 되어 소리나는 대로 적은 합성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낮잠'은 '낮 + 잠'으로 어법에 맞게 적은 합성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③번 '웃 + -음'은 어법에 맞게 적은 파생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바가지'는 '박 + -아지'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번 '꿈'은 '꾸 + -음'을 소리나는 대로, 어법에 맞게 적은 파생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사랑니'는 '사랑 + 이'에서 'ㄴ첨가'를 반영하여 소리나는 대로 적은 합성어의 경우에 해당한다.

<문법 답>

1.②

2.①

3.②

4.②

5.①

6.④

7.③

8.④

9.⑤

10.①

11.⑤

12.①

13.①

14.②

15.⑤

16.①

17.⑤

18.③

19.①

20.③

21.③

22.④

23.①

24.③

25.①

26.④

27.④

28.①

29.③

30.⑤

31.⑤

32.②

33.③

34.④

35.⑤

36.④

37.⑤

38.①

39.⑤

40.④

41.②

42.④

43.③

44.②

45.⑤

46.④

47.②

48.①

49.⑤

50.②

51.①

52.①

53.⑤

54.①

55.⑤

56.③

57.⑤

58.⑤

59.③

60.②

61.⑤

62.③

63.②

64.②

65.④

66.①

67.②

68.④

69.④

70.⑤

71.④

72.⑤

73.④

74.④

75.③

76.②

77.⑤

78.④

79.③

80.③

81.③

82.③

83.③

84.⑤

85.①

86.⑤	129.①
87.③	130.⑤
88.②	131.③
89.③	132.③
90.②	133.③
91.⑤	134.④
92.③	135.②
93.②	136.⑤
94.⑤	137.④
95.①	138.②
96.③	139.⑤
97.③	140.⑤
98.②	141.④
99.③	142.②
100.③	143.④
101.③	144.⑤
102.①	145.②
103.④	146.②
104.②	147.①
105.④	148.③
106.④	149.③
107.④	150.⑤
108.①	151.④
109.①	
110.③	
111.②	
112.⑤	
113.②	
114.①	
115.①	
116.④	
117.⑤	
118.④	
119.①	
120.④	
121.③	
122.①	
123.②	
124.⑤	
125.⑤	
126.⑤	
127.④	
128.⑤	